

동신대 태권도학과, 태권도 종주국 위상 해외에 알렸다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가 해외 태권도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알리고 있어 화제다.

동신대 태권도학과는 최근 'International Taekwon-Do Black Belt Center' 소속 독일·그리스·사이프러스 등 유럽 3개국 태권도 수련생 31명을 초청해 전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련생들에게 한국 태권도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수련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 종주국의 기술과 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동신대 태권도학과 정명규 교수가 맡아 참가자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기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태권도의 핵심 기술인 발차

유립 3개국 31명 초청·기술·품새 등 글로벌 교육 체계적 교육 시스템·수련 문화 체험 기회 제공

기의 원리와 응용 방법을 비롯해 품새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력, 힘 조절 및 균형 감각 향상 방법 등을 집중 지도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기술 교육뿐 아니라 예의와 인내, 배려와 도전 정신 등 태권도가 지닌 철학과 가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참가자들이 한국 태권도의 정신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해외 수련생들은 동신대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며 태권도를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국가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태권도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며 국

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정명규 교수는 "태권도의 기본기와 올바른 수련 방법을 해외 수련생들과 함께 나누며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교육이 참가자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민 태권도학과장은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가 보유한 전문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수련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태권도 발전과 저변 확대에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최근 'International Taekwon-Do Black Belt Center' 소속 독일·그리스·사이프러스 등 유럽 3개국 태권도 수련생 31명을 초청해 전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중국 산둥

성 문화교류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이는 등 교육과 실무를 겸비한 특

성화 교육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켄텍, 인공지능으로 달 3차원 지도 만든다

이석주 교수 연구팀, 세계 첫 AI 기반 월면 복원 기술 구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달 표면의 고정밀 3차원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 글로벌 우주·AI 융합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켄텍은 이석주 교수(사진) 연구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공동으로 개발한 AI 기반 월면 3차원 지도 생성 기술 'LNEM(Lunar Neural Elevation Model)'이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CVPR 2026 정규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우주 강국들이 달 탐사 경쟁에 나서면서 달 표면의 지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우주개발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LNEM은 실제 달 궤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달 표면의 높이와 지형을 3차원으로 복원하는 AI 기술이다. 기존 스테레오 정합(sterео matching) 방식이 그림자가 많거나 지형 특징이 부족한 지역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 반면, LNEM은 뉴럴 렌더링(Neural Rendering) 기술과 엄밀 센서 모델(Rigorous Sensor Model)을 결합해 보다 정밀한 지형 복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연구는 NASA의 달 정찰 궤도선 LRO(Lunar Reconnaissance Orbiter)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

누리(KPLLO)가 촬영한 실제 영상을 활용해 AI 기반 월면 복원 기술을 구현한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 결과 LNEM은 기존 방식보다 최대 5~10배 높은 공간 해상도의 월면 지형을 안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달 착륙선 위험 지형 분석과 착륙지 후보 평가, 탐사 로버 자율주행 경로 설계, 지형기반항법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후속 달 탐사 사업과 국제 공동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기반기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주 교수는 "실제 달 탐사선이 획득한 영상을 활용해 AI 기반으로 월면의 정밀 3차원 지형을 복원한 선도적 연구"라며 "향후 자율 착륙과 로버 주행, 우주자원 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지형정보 생성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 백우기·전찬혁 부사장 선임...미래 성장 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해외사업 강화...지속 성장 기반 구축 방점

한국전력은 1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백우기 전 영업본부장과 전찬혁 전 해외사업개발단장을 상임임사로 선임한 뒤 각각 기획부사장과 해외원전사업본부장(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백우기 선임 기획부사장은 1993년 한전에 입사해 비서실장, 경영연구원장, 남서울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백 부사장은 전략기획과 재무조달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전력산업 환경

변화와 경영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무개선 전략 수립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주주조합 설립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에너지 절감 플랫폼 구축, 한전ON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을 이끌었다.

전찬혁 백 부사장이 경영전략 수립과 재무관리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찬혁 선임 해외원전사업본부장은



백우기 부사장



전찬혁 부사장

1992년 입사 후 뉴욕사무소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단장, 해상풍력사업단장, 해외사업개발단장 등을 지냈다.

전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9억 달러 규모의 연계차입금 조달을

이끌었으며 총 8GW 규모의 해외사업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해외 에너지 사업 확대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수주를 통해 향후 1조5000억원 수준의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두 신임 부사장은 각각 재무·경영전략과 해외사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선임됐다"며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 속에서 경영 안정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장흥군, CCTV 설치 지원...위기가정 안전 확보

장흥군은 최근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발굴한 정동면의 한 한부모가정에 가정 내 CCTV 설치를 지원했다.

해당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신체적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돌봄 부담까지 겹쳐 안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군 담당자와 함께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정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성을 발굴·제안했다. 이후 대상 가정과 긴밀히 협력해 설치를 완료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복합 위기가정을 돌보고 지켜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311@gwangnam.co.kr

인사

전력거래소 ◇1직급(을) 승격 △전력기획팀장 박재수 △에너지계획팀장 조성민 △차기IT추진실장 최영민 ◇2직급 승격 △시장규획팀장 이자겸 △수소정책부장 김권 △성과혁신팀장 김상민 △노무복지팀장 김양일 △전략혁신사업팀장 김은철 △수급계획팀장 차장 최병선

게시판

결론 △김광호(여수시청 도로교통국장)·박현주(전남도청 주무관) 씨 딸 수연(비기닝뮤직엔터테인먼트 원장) 양, 김태연·박금남씨 아들 도영군=21일(일) 낮 12시 메리포엠 B1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5월 4일)

쥐 48년생 말을 아끼면 복이 될 것이다 60년생 모험성이 있는 일은 일단 피하라 72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잊지 마라 84년생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96년생 화를 부르지 손 쓰는 것을 주의하라

토끼 51년생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겠다 63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린다 75년생 문서를 취득할 찬스를 잘 잡을 것 87년생 더 높은 곳을 쳐다 보라 99년생 보지 못한 일은 못 봤다고 하라

말 54년생 모든 문서 체결은 지금 하라 66년생 본업에 충실한 것이 좋다 78년생 옳다고 생각되면 밀어붙여라 90년생 시차 잘못되면 가는 길 어렵다

돼지 57년생 계약이나 문서 관리는 허시다 69년생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을 마련하는 날 81년생 탐탁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좋다 93년생 진전이 있겠다

소 49년생 방식이 구체적이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61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73년생 팔리고 배이는 것을 주의하라 85년생 경쟁 불을 일으키면 불리할 것이다 97년생 직장에서 갈등과 불화가 생길 것

호랑이 52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다 64년생 금전에 관한 일들은 다음 달로 미뤄라 76년생 친구 만나 정담 주고받는다 88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어야 한다

양 55년생 자녀의 승진 또는 집 장만을 할 운 70년생 경험과 직감이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79년생 새로운 것 창조할 운이다 91년생 몸에 충격이 받거나 위치가 변동 될 것

개 58년생 선불리 건드렸다가는 뼈도 박도 못 한다 70년생 계획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성과 있다 82년생 몸이 힘들어도 득이 많은 날 94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강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62년생 손재주가 따르니 금전관리를 잘하라 74년생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86년생 수심이 깊어 건널 배가 필요하다 98년생 휴식이 필요한 때이니 여행을 하라

범 53년생 얼마 안 된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65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77년생 과음은 중병을 부르게 될 것이다 89년생 빨리 들고 천천히 말하라

원숭이 56년생 부부 갈등이 우려되니 조율이 있어야 68년생 경사가 연발할 운 80년생 희망찬 기운이 계속되는 운이다 92년생 이익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돼지 59년생 안정 계도를 진입하는 길목이다 71년생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83년생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95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다